

암참, 제약 · 녹색산업 유망

팻 게인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신임 회장은 6월22일 한국경제에서 제약과 녹색산업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게인스 회장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조기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암참의 노력을 열거하면서 <역사적인 협정>의 비준 동의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게인스 회장은 “2011년 3월 미국 국회의원과 행정부 관료를 만나기 위해 암참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했고, 최근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을 한국에 초청해 한-미 FTA를 포함한 경제협력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FTA가 비준되고 나서도 미국과 한국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세미나를 준비할 것이라고 암참 회장은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2>